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 레;코드(RE;CODE)의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여 -

연 주 현 · 박 주 희*

국민대학교 대학원 패션학과 석사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오늘날 패션 산업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며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내의 패션브랜드 레;코드에 주목하였다. 레;코드는 재고의 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물질적 낭비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되었으며, 재고를 활용하여 소량 제작하거나 같은 디자인이라도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의상들을 한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현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레;코드의 디자인 개발 방법과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방식의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작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문헌 연구와 기업 사례를 고찰하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레;코드 제품 418점을 대상으로 디자인 방법을 분석하고 4점의 작품을 개발 및 제작하였다. 우선 사례 연구의 결과로서 레;코드의 재고를 활용한 해체 및 재조합 제품에서 디자인 개발의 순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형태의 겹침’, ‘형태의 왜곡’, ‘형태의 결합’, ‘형태의 분할’ 그리고 ‘부분의 강조’라는 5가지의 디자인 방법이 논의되었으며 ‘단순함의 독특함’, ‘미완성의 완성’, ‘불균형의 균형’, ‘위치의 재편성’이라는 4가지 조형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오래된 것에 새로움을 덧입힌다는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기본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중고 전통한복을 소재로 채택하였으며, 레;코드에 나타나지 않은 이브닝 드레스 4점을 개발 및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레;코드가 구축한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되, 레;코드가 지닌 재료나 복종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지평을 확장했으며,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개발 방법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레;코드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박주희, ju-hee@kookmin.ac.kr

접수일: 2020년 5월 3일, 수정논문접수일: 2020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28일

I. 서론

오늘날 패션 산업은 환경오염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프랑스 환경매체 노트르 플라네프(Notre planète)에 따르면 의류가 생산에서 매장까지 유통되는 과정에는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의류가 폐기되는 과정에서 매립하는 경우에는, 폴리에스터가 분해될 때까지 최소 500년이 걸리며, 소각하는 경우에는,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된다고 한다(Kwon, 2018).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가 국내외의 주요 사회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지속가능 패션브랜드의 론칭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며, 기업의 상품기획이나 마케팅 방향, 나아가 장기적인 연구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버려질 소재로 가방, 모자와 같은 패션 소품을 만드는 브랜드는 물론이고, 콜리나 스트라다(Collina Strada), 나타샤 진코(Natasha Zinko)와 같은 해외 브랜드와 래;코드(RE;CODE), 니들엔코(Needlenco)와 같은 국내 브랜드 등 의류를 만드는 지속가능 패션브랜드의 사례는 다수 있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사례로서 버버리(Burberry), 구찌(Gucci), 에이치앤엠(H&M) 등을 들 수 있다.

소각단계의 재고를 활용하여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래;코드는 지속가능 패션브랜드이자 기업의 장기적인 사회적 활동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학술적 연구대상으로서 가치가 크다. 래;코드는 재고 의상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우 소량의 상품을 제작하고, 같은 디자인이라도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의상들을 한정 생산하여 개성을 중시하는 오늘날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시키고 있다. 또한 유능한 독립 디자이너나 사회적 약자인 지적 장애우, 미혼모 등과 협업하여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래;코드는 브랜드 운영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윤이 없음에도 코오롱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무형의 가치를 창출

하고 있는 것이다.

패션 산업에서 확대되고 있는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의 적용 사례와 의미 분석(Chon & Bae, 2015; Kim, 2007)과 디자인 개발 관련 연구(Heo, 2013; Kwon, 2011; Park, 2013; Shin, 2014)가 있었으며, 제로웨이스트 커팅과 같은 의복 구성 방법 연구(Kook, 2013) 등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 중인 래;코드에 대한 연구는 2016FW까지 발표된 래;코드 상품을 조형적으로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7)가 있을 뿐 래;코드 디자인 방법에 내재한 가능성을 확장한 디자인 개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래;코드와 같은 국내의 성공적인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의 경우, 조형성 연구와 더불어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 디자인 개발 방법 연구 또한 다양한 각도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로 인한 디자인 개발 및 교육방법의 모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래;코드의 컬렉션에서 실천한 디자인 방법과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활용하여 새로운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 패션의 새로운 실험과 시도는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한편 무궁무진한 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내재한 분야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후속 연구와 교육으로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패션의 개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 패션을 실천한 국내의 패션 기업의 사례를 살펴본다. 둘째, 코오롱 래;코드의 브랜드 개요와 소재별 제품 구성, 디자이너 및 기업 간의 지속가능 패션의 실천 사례를 고찰한다. 셋째, 래;코드가 발표한 2012FW-2019SS 컬렉션을 중심으로 제품을 해체하고 조합하는 개발 과정을 통해, 디자인 작품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형태적 디자인 방

법과 조형적 특성을 도출한다. 넷째, 래;코드에 나타난 형태적 디자인 방법과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디자인 작품을 개발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사례 연구, 디자인 개발 연구이다.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패션에 관한 개념, 그리고 래;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위해 관련 서적, 학위·학술지 논문,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를 문헌 연구하고 래;코드의 디자인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공식 사이트(www.recode-global.com)에 나타난 2012 FW-2019SS 컬렉션 중 해체 및 재조합된 의상 총 418점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한다. 래;코드 컬렉션에서 도출된 디자인 방법 및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고 총 4벌의 작품을 제작한다. 이때, 래;코드의 디자인 개발 방법을 차용하되, 소재 및 복종의 미흡한 부분을 모색하여 디자인 개발하고자 한다.

II.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고찰

1. 지속가능 패션의 개념

1)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인간 생활과 관련한 환경, 경제, 사회 등 전 부문에 걸쳐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개념은 1972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의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Bae & Jung, 2018). 이후 1987년에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명시하며(Kim, 2006) 발전과 연속성을, 미래 세대와 현재대를 연결하는 지속가능성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1992년 브라질에서 개

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일명 ‘리우 회의’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3가지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적인 원칙을 내포한 리우 선언문의 회의 결과로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고(Kim, 2006), 각국의 실천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며 보완할 수 있도록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를 설치하였다(Jeong, 2013). 21세기에 접어들며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지역의 이웃에서 지구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의 필요를 절충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사람과 환경 모두 최선을 주는 계획과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지속가능 패션

지속가능 패션은 환경, 경제, 사회적 범주 안에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패션 활동이며(Jeong, 2013),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패션 제품의 생산과 사용 그리고 폐기 과정까지를 고려하는 것이다(Naver Dictionary, n.d.a). 패션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1960년대의 자연 친화적 히피(Hippie) 문화와 1970년대의 천연섬유, 천연 염료를 채택했던 에콜로지 패션(ecology fashion)을 들 수 있다(Kim, 2007). 1990년대에는 자연의 색상과 자연물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모티프로 사용하는 에코 패션(eco fashion)이 크게 유행하였다(Bae & Jung, 2018).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패션의 추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으며, 디자인, 생산, 포장, 유통, 그리고 사용 후 폐기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친환경 패션’과 생태계를 고려한 ‘그린 패션’ 등이 패션의 키워드로 나타났다(Shin & Hong, 2010).

오늘날 지속가능 패션의 실천은 비건(vegan),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플라스틱 재탄생(rebirth

plastic)을 아우르는 ‘대안 소재 사용’,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업사이클링(upcycling)’, ‘공정무역(fair trade)’ 등으로 구체화된다(Lee, 2020). ‘대안 소재 사용’은 동물의 가죽이나 모피, 양모, 견과 같은 동물성 재료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인조가죽이나 인조 펄, 유기농 재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만든 재생 폴리에스터 등 대안 소재를 사용하는 실천을 포함한다(Kim & Park, 2018). ‘제로웨이스트’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생산과정에 대한 실천이며, ‘업사이클링’은 오래되거나 수명을 다한 제품을 새로운 가치를 입히는 디자인 실천이다.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은 패션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감시하고 실천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 패션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업은 모든 공정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협력업체와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관심이 소비자들의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이해와 참여로 이어지도록 여러 캠페인 활동을 한다.

2. 지속가능 패션 실천 사례

1) 지속가능 패션브랜드

(1) 국내 사례

동물을 학대하거나 자연을 해치는 패션 소재를 피하는 방식의 지속가능 브랜드로는 ‘비건 타이거(Vegan tiger)’, ‘오픈 플랜(Open plan)’이 대표적이다. 2015년 론칭한 ‘비건 타이거’는 모피나 가죽 채취로부터 고통받는 동물을 해방시키고자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 라는 슬로건 아래 비건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Vegan tiger, n.d.). 2010년 설립된 ‘오픈 플랜’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재배한 오가닉 코튼만을 사용

하고 천연재료로 염색하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소재 사용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동차나 선박 등 이동 수단이 초래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실천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Open plan story, n.d.).

제로웨이스트를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에는 ‘파츠파츠(Parsparts)’, ‘제로 디자인(Zero design)’이 있다. 중견 디자이너 임선옥이 201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파츠파츠’는 패턴 제도와 재단 및 봉제 등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며 국내 지속가능 브랜드를 대표하고 있다(Chung & Park, 2015). ‘제로 디자인’은 지속가능한 제품기획과 컨설팅을 하는 공공공간(000gan)이 2012년 론칭한 패션브랜드로서 3-5% 이하의 재료만을 남기는 제로웨이스트 재단방식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다. ‘제로 디자인’은 또한 패션브랜드의 재고 문제를 피하고자, 경쟁력 있는 스테디셀러를 개발하고자 하며, 실수요만큼 생산하는 제조방식을 취하고 있다(000gan, n.d.).

국내에서 업사이클링 방식을 취하는 지속가능 브랜드는 데님 바지, 패트병, 커피 원두 자루 등을 재활용하는 ‘젠니 클로젯(Genny closet)’, ‘플리즈마마(Pleats mama)’, ‘하이사이클(Hicycle)’과 같은 가방 브랜드 등 주로 액세서리에 국한되며, 의류를 만드는 패션브랜드로는 ‘래,코드’와 ‘니들앤코’를 들 수 있다. ‘니들앤코’는 에코프리즈즘(Ecoprizm)이 출시한 ‘윤리, 생태, 미학’을 추구하는 에코 라이프 브랜드로서 의류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니트 원사와 원단을 업사이클링하여 ‘니트, 스타일의 해방을 꽃피우다’라는 테마로 니트 의류와 인테리어 용품을 만들고 있다.

그 외의 지속가능 패션브랜드의 범주로서, 자연주의 브랜드 ‘이새(Isae)’, 공정무역브랜드 ‘그루(Gru)’와 같이 자연과 가까운 소재를 쓰면서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작업하거나, 빈곤 국가, 여성 노동자 등 소수 생산자의 권리를 생산에 담아내는 브랜드

나 라인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2) 해외 사례

원단의 순수한 상태를 존중하는 자연주의 브랜드로는 나탈리 채닌(Natalie Chanin)이 만든 ‘알라바마 채닌(Alabama Chanin)’과 환경운동가 사피아 미니(Sapia Minney)가 설립한 ‘피플 트리(People tree)’가 대표적이다. ‘알라바마 채닌’은 유기농 소재를 사용하고 가공과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순수원단을 추구하는 브랜드로서, 퀼트 장인과 같은 수공업 전문가와 협업하여 작품을 만든다. ‘피플 트리’는 친환경 소재, 수공예를 지향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땅속에 묻었을 때 자연 분해되는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사용 후까지도 지속가능한 생산을 하고 있다. 피플 트리는 또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공정하게 제품의 이익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정무역 생산체계를 만들었다.

업사이클링 방법으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해외 패션브랜드에는 재고 원단이나 빈티지 의류 등을 재활용해 컬렉션을 발표하는 ‘콜리나 스트라다’, ‘나타샤 진코’, ‘보디(Bode)’ 등이 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는 형태, 색상, 소재 등 조형적 측면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 대체로 브랜드 정체성이 뚜렷하다. 컬렉션 의상의 대부분을 리사이클링 원단으로 제작하는 ‘콜리나 스트라다’는 사회적 이슈에 귀 기울이면서도 유머러스함과 젊음을 추구하는 개성적인 브랜드이며(Kim, 2020), ‘나타샤 진코’ 또한 반다나, 데님 등의 빈티지와 재고 의류를 활용하여 화려한 색감과 위트있는 패턴, 재미있는 실루엣이 조합된 컬렉션을 발표하며 SNS 스타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Kim, 2019). 컬렉션의 영감을 원단 자체에 두고 있는 ‘보디’는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오는 엔틱 퀼트, 지역 패턴 등 전통성을 가진 원단으로 만든 유니섹스 남성복으로, 지역 공장과 협업하여 전통 직조방식이나 기법을 통하여 제작하기도 한다. 해외의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 사례에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브랜드의 독립적 라인으로 발표하고 있는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의 레시클라(Recicla)시리즈와 마린 세르(Marine Serre)의 그린 라인(Green line)이 있다. 특히 마린 세르의 그린 라인은 청바지로 재킷을 만들거나 침대시트로 드레스를 만드는 등의 그린 라인 작업 과정을 재생(regenerated)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하였다.

2) 패션 기업의 지속가능 활동

오늘날 패션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천은 일회성 프로젝트를 넘어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잉생산이나 재고 소각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로 자주 노출되는 브랜드이자 동시에 환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버버리, 구찌, H&M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버버리

버버리의 설립자인 토마스 버버리(Thomas Burberry)는 1879년에 영국 날씨에 적합한 통기성 있고 방수성과 내구성을 지닌 개버딘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이 소재는 현재까지 버버리의 대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ITN, 2017). 버버리는 이러한 브랜드 역사에서 소재 혁신이 갖는 장기적 가능성에 주목하며 폐기물을 줄이는 소재 활용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2017년 버버리는 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에 300만 파운드(약 44억 3000만 원)를 지원하여 의류 신소재 개발을 위한 R&D 기관, ‘버버리 소재 미래 연구 그룹(Burberry Material Futures Research Group [BMFRG])’을 설립하였다. 이는 버버리가 구상하고 있던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리서치 센터’의 첫 번째 기관이며

이를 통해 전혀 다른 사고로 지속가능한 소재를 개발하고, 소비자 체험을 변화시키며, 산업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조업을 진보시키고자 하였다. 2019년 버버리는 섬유 생산 업체인 아쿠아필(Aquafil)과의 협업으로 ‘에코닐 캡슐 컬렉션(Econyl capsule collection)’을 선보였다. 에코닐은 어망, 섬유 조각 및 산업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해 재생산된 고품질의 나일론 섬유로, 새로운 지속가능 소재이다. 버버리는 에코닐 캡슐 컬렉션을 SNS를 통해 알리며, 202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한 과정을 밝혔다(Yoo, 2019.).

(2) 구찌

구찌는 2018년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포부를 담은 ‘구찌 이퀄리브리엄(Gucci Equilibrium)’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이에 기반을 둔 10개년 지속가능성 계획에 환경(environment), 인류(people), 신모델의 세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Nam, 2019). ‘환경’ 원칙은 브랜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측정하고,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개발하고, 화학물질 관리, 친환경 패키징 도입, 모피사용 중단 등을 실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Gucci Equilibrium, n.d.), 원자재 추적을 95%까지 보장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Kang, 2018). ‘인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비즈니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세대의 장인정신과 창의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Gucci Equilibrium, n.d.). 구찌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임직원의 삶을 향상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탈리아 성소수자 비영리 단체인 파크스(Parks)에 가입하여 다양성 존중에도 힘쓰고 있다(Kang, 2018). 마지막 원칙인 ‘신모델’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과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에 관해 창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Gucci Equilibrium, n.d.). 구찌는 연구 센터인 ‘구찌 아트랩(Gucci ArtLab)’을 설립하여 장인 정신과 실험 과정을 통한 전보적인 혁신 환경을 조성하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확장하기 위해 여러 펀딩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있다(Kang, 2018).

(3) H&M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패스트 패션의 대표적 브랜드 H&M은 2012년부터 지속가능 방식으로 제작된 소재를 사용하는 ‘컨셔스 익스클루시브 컬렉션(Conscious Exclusive Collection)’을 매 시즌 발표하고 있다. 이 컬렉션은 페트병으로 만든 재활용 폴리에스터, 유기농 면, 텐셀과 같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재로 제작한 아이템들로 구성되었으며(Sustainability, n.d.), H&M은 2030년까지 100% 지속가능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재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M은 또한 스웨덴의 또 다른 대표적 유통회사 이케아(Ikea)와 함께 재활용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섬유에 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연구에 돌입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두 기업은 수집된 재활용 섬유로 8,000개 이상의 테스트를 했으며, 단순한 직물 재활용 차원을 넘어 안전한 순환경제

Table 1. 지속가능 패션 실천 사례.

유형	국내	국외
친환경소재	Vegan tiger, Open plan, Isae	Alabama Chanin, Burberry, H&M
업사이클링	Re;code, Needlenco	Collina Strada, Natasha Zinko, Bode, Maison Margiella-recicla, Marine Serre-green line
공정무역	Gru	People tree, Gucci
제로웨이스트	Parsparts, Zero design	-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재활용 섬유사용이 증가되고 향후 입법 및 표준화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H&M Group and IKEA collaborate”, 2019).

지속가능 패션의 브랜드 사례와 기업 사례 논의는 <Table 1>로 정리될 수 있다.

III. 래;코드의 디자인 방법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1. 래;코드 브랜드 개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FnC의 래;코드는 ‘This is not just Fashion’이라는 철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높은 환경에 상무를 중심으로 2012년에 론칭되었다. 래;코드의 브랜드 명칭은 ‘생각의 전환을 기반으로 재해석된 디자인’을 의미하는 ‘re’와 ‘환경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패션 이상의 문화’로서 ‘code’의 합성어이다. 래;코드는 대량 생산되어 폐기되는 제품 중 최적의 상품을 선별하고 해체 및 재조합하여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로서, 주류문화에서 소외된 독립 디자이너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미혼모, 새터민, 국제 난민 등과 상생적 활동으로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을 지향한다(RE;CODE is... This is not just fashion, 2015). 래;코드는 생산과 공급 그리고 폐기까지의 흐름이 빠르며 재고의 소각으로 환경을 위협하는 패션 산업의 문제를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래;코드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 고찰을 런칭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활동, 제품 구성, 협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활동

래;코드는 2012년 출시와 함께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나 패션쇼, 팝업 스토어를 열어 업사이클링과 하이패션의 새로운 조화로서 브랜드를 인지도시키고 있으며, 출시 2년 차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과 업사이클링 전시나 워크숍을 운영하는 공간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래;코드의 지속가능 활동은 서울 에코 브릿지(Eco-Bridge) 페스티벌, 디자인코리아, 대한민국친환경대전, 청주국제공예페어,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패션위크 등의 다양한 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했다. 래;코드는 론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베를린, 파리, 뉴욕, 밀라노, 런던, 홍콩 등의 패션 박람회나 아트페어에 출품하였고, 뮌헨, 로스앤젤레스, 홍콩, 상하이, 킬, 마르세유 등지에서 개최된 행사에 전시, 워크숍, 강연 등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실로서 홍콩 DFA(Design for Asia Awards)상과 Y.E.S.(Yoox.com Esthetica Sustainability)상에 선정되었고, 파리의 메르시(Merci), 레클레르(L'e Claireur), 베를린의 더스토어(The Store)와 같은 편집숍에 팝업 스토어를 열 기회를 가졌다(RE;CODE, 2016; RE;CODE, 2019).

래;코드는 복합문화공간 시리즈코너(Series corner) 이태원점 내에 플래그십 매장과 아트선재 내에 리스페이스(RE;SPACE) 매장, 그리고 국내외 10여 개 편집숍을 통해 업사이클링 리디자인된 시즌별 컬렉션을 판매하고 있다. 나아가 명동성당에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영상, 국내외 작가들의 업사이클링 작품을 구비하고 공방 수업을 통해 업사이클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래;코드 나눔의 공간’을, 노들섬에 래;코드의 옷이 만들어지는 아틀리에와 도서관 및 워크숍이 운영되는 공간으로서 ‘래;코드 지속가능 스튜디오’를 설치하였다(RE;CODE, n.d.; RE;CODE, 2019).

래;코드는 또한 업사이클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리테이블(RE;TABLE)’을 운영하고 있다. 리테이블은 2016년부터 일상의 소재로 쉽게 업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도록 전시나 공간에 따라 기획된 워크숍으로, ‘에코백으로 가방, 달력 만들기’, ‘카시트로 책갈피, 카드지갑 만들기’와 같은 프로젝트를 국내외의 전시나 매장 오픈과 같은 행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The Fantastic place, n.d.). 리테이블의 또 다른 기획은 리테이블 아이템을 언제 어디서나 제작해볼 수 있는 D.I.Y 패키지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다. 래;코드의 지속가능 패션 활동은 론칭 이후 8여 년간 그 형식과 대상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패션 기업의 사회적 기여로서 긍정적 사례를 이루고 있다.

2) 제품 구성

래;코드의 제품은 재활용의 대상에 따라 ‘의류 폐기물(clothing wastes)’, ‘군용 폐기물(military wastes)’, ‘산업 폐기물(industrial wastes)’의 3가지 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RE;CODE, 2015). ‘의류 폐기물’ 라인은 소각 대상인 코오롱 20여 개 브랜드의 3년 이상 된 재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래;코드를 통해 폐기 의류, 텐트, 신발 등 다양한 재고가 지적장애인의 일터, ‘굿윌스토어’에서 해체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거듭난다. 이때 기성복을 해체하여 완성품을 제작하면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독특한 디테일을 추구한다.

래;코드의 두 번째 제품라인은 육군과 공군에서 폐기하는 텐트, 군복, 낙하산 등 ‘군용 폐기물’을 이용한 라인이다. 군 제품에 사용된 소재는 내구성, 빈티지 특성을 갖는다. 래;코드는 이를 경매로 매입해 세척과 해체 과정을 거친 뒤 가방이나 패션 액세서리 소재로 업사이클링한다.

‘산업 폐기물’ 라인은 불량품으로 분류되어 사용 전 폐기되는 소재를 활용하는 제품으로 구성되

며, 주로 자동차에 쓰이는 에어백이나 시트 소재로 리디자인하고 있다. 래;코드는 폴리에스터 원사로 직조, 도안, 세척, 열처리, 실리콘 코팅 등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치며, 안전과 직결되어 철저한 검수를 받는 이 산업 소재로 가방을 비롯하여 여성용 셔츠, 사파리 재킷, 작업복 등을 만들었으며, 이로써 산업 폐기물의 존재를 알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패션을 통해 자원을 순환시키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래;코드가 추가하고 있는 또 다른 제품군으로는 2016년에 시도한 반려견을 위한 ‘페넥트(PENNECT: pet+connect)’와 부자재를 이용하는 ‘리나노(RE;NANO)’ 라인을 들 수 있다. 페넥트는 견주의 옷을 리디자인한 상품군으로 반려견과 주인의 유대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해준다는 의미를 지녔으며, 입체 패턴 제작으로 특별한 디자인과 퀄리티의 라인이다. 리나노는 의류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안감, 실, 단추, 지퍼, 라벨 등 나노처럼 아주 작은 폐기물을 모아 새로운 디테일 디자인으로 변신시키는 라인으로서, 분해된 부자재를 기본 티셔츠나 셔츠의 포켓 등 디테일로 활용하여 업사이클에 생소한 고객들에게 친환경의 의미를 무겁지 않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추억이 내재된, 그러나 유행이 지나 입지 못하는 의류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시켜주는 개인 맞춤 서비스 ‘리컬렉션(RE;COLLECTION)’ 라인을 론칭하였다.

3) 협업 사례

래;코드는 본사 디자이너 외에 수많은 독립 디자이너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국가와 성별, 나이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패션, 문화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티스트들과 작업한다. 래;코드에 소개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독립 디자이너를 비롯하여 특별한 유통이나 재단, 아티스트 등과의 협업이 있다(RE;CODE, 2019).

래;코드는 국내의 여러 독립 디자이너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중 여러 차례 협업을 이룬 사례로 부리(Bourie)와 비뮈에트(Bruiette)가 있다. 디자이너 조은혜의 여성복 브랜드 부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디테일과 정제된 관능미, 이질적 소재의 조합 그리고 볼륨과 균형에 대한 통찰로 완성되는 조형미를 지녔다. 이러한 부리의 디자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래;코드의 협업 방식은 테일러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체주의적 디자인에 관한 지속적 연구 등과 같은 부리의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래;코드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가장 친환경적인 옷은 오래 입는 옷이며, 물려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디자이너의 가치관은 래;코드가 지향하는 친환경의 본질에 닿아 있어, 이 협업은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한편 디자이너 서병문, 엄지나의 비뮈에트는 래;코드 런칭 초기부터 세 시즌에 걸쳐 호흡을 맞췄다. 입체적 구조감과 아방가르드한 패턴, 톤 다운된 색감 등이 특징인 래;코드와 비뮈에트의 공동 작업은 이탈리아 ‘피티 이매진 위모(Pitti Immagine Uomo)’의 컨셉 코리아(Concept Korea)에서 소개되기도 하였다(RE;CODE, 2019).

의상 디자이너와의 협업 외에도 래;코드는 가방을 만드는 독립 디자이너, 다양한 브랜드의 프리미엄 데님을 판매하는 블루핏(Blue Fit),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실천하는 재단법인 아름지기와의 협업 사례도 있다. 래;코드는 2016년 가방 브랜드 블랭코브(BLANKOF)와 자동차 페어어백을 활용한 가방을 제작하는 협업을 기획하였다. 자동차 에어백은 뉴트럴(neutral) 컬러의 단단한 직조에 특유의 광택과 패턴이 있으며 가볍고 방수, 방오 기능이 있어 뛰어난 가방 소재로 평가된다. 이 협업에서 토트백, 백팩 등 7가지 스타일을 제작하여, 디자인 완성도와 실용적 측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블루핏과의 협업은 코오롱과 블루핏의 재고 의류를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작업이다. 데님은 래;

코드의 핵심 소재로서, 색감과 텍스처가 다양하고 재해석의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재가 단단하고 복잡한 봉제 과정으로 해체 작업이 힘든 문제로 숙련된 장인이 요구된다. 블루핏과의 협업은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시즌마다 소재와 디자인의 확장을 이루고 있다. 래;코드는 2016년 아름지기재단에서 한복을 기증받아 업사이클링하였으며, ‘저고리, 그리고 소재를 이야기하다’라는 전시로 현대 일상복으로 소환된 한복을 대중에 소개하였다. 한복을 분석하고 해체해 양복, 셔츠, 스포츠웨어 등 재고 의류와 조화롭게 조합한 이 시도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미래로 이끄는 작업이자 래;코드 디자인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었다.

패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아티스트와의 협업 사례도 있다. 래;코드는 2015년에 헨릭 뫼스코브(Henrik Vibskov)와 ‘Inside Out’이라는 콘셉트로 협업하였다. 뫼스코브는 패션, 사진, 설치, 영상 등 장르의 제약 없이 활동하고 있는 덴마크 아티스트로 실험적 디자인과 퍼포먼스로 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허문다는 평을 받는다. 뫼스코브는 팔을 떼어내거나 옷의 안팎을 뒤집는 리디자인 방식을 취했으며 래;코드의 디자인 가치와 협업의 의미를 담은 라벨까지 디자인함으로써 옷의 내적 아름다움을 바깥으로 꺼내 보여주는 리디자인의 가치를 표현한 의상을 선보였다(RE;CODE, 2016). 프랑스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안드레아 크루(Andrea Crews)와의 협업도 주목을 끌었다. 안드레아 크루는 스타일리스트, 뮤지션, 디자이너, 작가, 포토그래퍼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아티스트로 구성된 집단으로, 래;코드는 소재와 프린트, 컬러를 틀에 얹매이지 않고 사용하며, 환경과 관련한 캠페인 참여 등 사회적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안드레아 크루와 파리 패션위크 2018FW 작업을 함께 했다. 이 협업은 ‘Less is More, Zero Waste Production’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성 제품 두

벌을 8개의 아이টে으로 재탄생시켰다.

2. 형태적 디자인 방법과 조형적 특성

본 절에서는 지속가능 패션브랜드 래;코드가 발표한 2012FW-2019SS 컬렉션을 대상으로 디자인 방법을 도출해내고,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주로 래;코드가 출고 3년이 지난 기성복 재고와 산업용, 군사용 소재나 제품을 해체 및 재조합하여 리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형태(form)를 이루는 방법과 원본과 해체된 조각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세부 기법을 탐색하는 것이며, 디자인 방법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미적, 조형적 특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은 같은 디자인 방법의 반복된 형태를 제외한 총 418점의 이미지이다. 일반적으로 조형적 요소는 형, 재질, 빛, 색, 선, 그림자 등을 이으며(Naver Dictionary, n.d.b) 패션디자인의 경우 형, 소재, 색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조형이 완성된다. 본 연구는 이미 제작된 기성품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업사이클링 컬렉션이 일정한 형을 따르기보다는 의외의 형태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태에만 집중하여 분석하였으며, ‘형태의 겹침’, ‘형태의 왜곡’, ‘형태의 결합’, ‘형태의 분할’ 그리고 ‘부분의 강조’라는 5가지의 디자인 방법과 ‘단순함의 독특함’, ‘미완성의 완성’, ‘불균형의 균형’, ‘위치의 재편성’의 조형적 특성이 논의되었다.

1) 형태적 디자인 방법

(1) 형태의 겹침

의상을 패턴 조각으로 해체 후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재조합을 하다보면 다수의 부분들이 겹쳐지거나 서로 다른 조각들이 이어 붙여진다. ‘서로 덧놓이거나 포개어짐’이라는 의미(Naver Dictionary, n.d.c)의 겹침은 상대적인 비례와 공간에서의 위치에 따라(Akner Koler, 2000)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래;코드 컬렉션에서는 폐기되는 제품을 해체하여 재조합할 때 서로 다른 패턴 조각을 조합하여 겹치거나 이어붙이며, 남은 부자재나 패턴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여 덧대거나 메우고 서로 엮어 놓은 디자인이 다수 발견되었다. 한 착장 안에서 나타나는, 겹쳐지거나 서로 다른 패턴들끼리 재봉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형태의 겹침’ 방법에서는 ‘겹치기’(Figure 1), ‘덧대기’(Figure 2), ‘메우기’, ‘엮기’, ‘이어 붙이기’ 등의 기법이 논의되었다.

(2) 형태의 왜곡

‘힘이 가해져서 그 내부의 구조와 기본요소에 형태적인 영향을 가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왜곡은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재질의 특성에 가해진 힘의 결과이다. 리디자인의 과정에서 재료의 모양이나 성질이 원래의 형태와 다를 때 나타나는 왜곡은 매우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이다. 래;코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형태의 왜곡 사례들은 패턴 조각을 원래의 위치가 아닌 부분으로 서로 교환하거나, 기존 착장 방식을 따르지 않는 방식, 서로 다른 위치와 재질의 패턴 조각을 조합하는 방법, 패턴 조각의 위치나 순서를 다르게 배치하는 등의 ‘교환하기’, ‘다르게 입기’(Figure 3), ‘조합하기’, ‘재배치하기’(Figure 4) 기법으로 나타났다.

(3) 형태의 결합

래;코드의 디자인은 이미 형태를 이룬 기성복을 해체한 후 시작된다. 해체된 각각의 형태들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디자인은 각각의 조각 형태가 갖는 특성에 의해서, 그리고 맞물리는 과정에서 고안되는 결합의 방식에 의해서 구현된다. 래;코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 방법으로서 형태의 결합은 해체와 재조합된 부분들의 결합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때 제로웨이스트



Figure 1. 곁치기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Figure 2. 덧대기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Figure 3. 다르게 입기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Figure 4. 재배치하기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Figure 5. 묶기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Figure 6. 노출하기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Figure 7. 분리하기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Figure 8. 장식하기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를 실천하고 또 디자인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하여, 남은 조각으로 만든 리본을 활용하는 방식이 발견되었으며, 결합의 과정에서 큰 의상을 여성용 사이즈에 맞추기 위해 주름을 잡는 방식도 분석되었다. ‘묶기’(Figure 5)와 ‘주름잡기’는 형태의 결합에 활용된 기법이기도 하지만, 심플한 의상에 새로움과 유니크함을 더하는 효과를 주기도 하였다.

(4) 형태의 분할

‘나누어서 조깅다’(Naver Dictionary, n.d.d)라는 사전적 의미의 분할은 하나의 형태를 절단해서 두 개나 그 이상의 독립적인 부분을 창출해내는 것이다(Akner Koler, 2000). 형태의 분할은 래;코드 작업 방식의 첫 단계인 완성품 해체에서부터 적용되는 방법이다. 래;코드 컬렉션에 나타난 형태의 분할은 분리된 상태를 그대로 두어 옷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조형성을 추구하거나, 분할의 모양과 비율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방식, 그리고 옷의 일부를 잘라내어 길이나 모양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식 등의 ‘노출하기’(Figure 6), ‘분리하기’(Figure 7) ‘분할하기’, ‘자르기’ 기법이 논의되었다. 또한 의상의 안쪽 부분이나 마감되지 않은 부분의 가장자리 올 폴림이나 시침질, 실이나 라벨 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법도 형태의 분할에서 논의되었다.

(5) 부분의 강조

기성품의 해체는 예상치 못했던 장식이나 소재, 디테일의 발견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발견은 디자인의 혁신을 추구하는 래;코드의 디자인 방법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래;코드는 해체 과정에서 발견한 부분들, 다른 제품을 제작하고 남은 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단순한 디자인에 디테일을 부여하거나 부분 강조의 디자인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래;코드 디자인의 방법 중 부분의 강

조로 분류된 컬렉션 의상에서는 ‘장식하기’ 기법이 나타났다(Figure 8).

2) 조형적 특성

기성품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래;코드의 컬렉션의 디자인 방법 분석에서 ‘단순함의 독특함’, ‘미완성의 완성’, ‘불균형의 균형’, ‘위치의 재편성’과 같은 조형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첫째, 시즌마다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래;코드는 기본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에 유니크한 특징을 갖는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소각 예정 채고 중에서도 재생하여 패션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복종이 유행을 타지 않으며,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남녀 정장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특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성품을 재료로 해체와 재조합 작업을 하면서 구현되는 작은 의외성이 래;코드 디자인이 갖는 차별적 경쟁력이다. 래;코드는 해체된 남성 정장 재킷의 안감이나 심지 부분을 패치워크하여 디자인 요소로 적용하거나(Figure 9) 안주머니를 겹주머니로 전환하고 텍스처가 다른 재킷의 톤온톤 원단을 조합하는 등의 작업으로, 단순한 디자인에 새로운 요소를 접목하여 독특함을 추구하는 ‘단순함의 독특함’ 특성을 갖는다.

둘째, 해체와 재조합의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자연스럽게 옷의 내부를 관찰하고 많은 가능성을 발

견하게 된다. 래;코드는 옷의 내부는 물론이고, 해체된 조각의 가장자리를 겹으로 내보이는 방식으로 해체주의 디자인을 표현하면서도,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완벽히 재봉하여 ‘미완성의 완성’ 특성을 추구한다(Figure 10). 데님 가장자리를 마감처리 하지 않거나, 남성 정장 내부의 팔자 뜨기로 접착된 심지를 노출하는 방식, 에어백의 재단선이나 봉제의 흔적을 강조하는 등의 시도가 그 예이다.

셋째, 래;코드의 컬렉션에는 대칭의 옷이 드물다. 대칭은 형태의 정형(正形)을 유지하면서 시각적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래;코드의 디자인은 옷을 해체하는 순간부터 접합 부분과 지탱 부분이 이루던 평형의 힘이 자극되어, 균형과 불균형 사이에서 새로운 미를 찾아낸다. 래;코드는 이미 균형을 이룬 기성복을 해체하고 조합하면서 서로 다른 크기와 길이의 패턴들을 접합 때, 이를 일부러 끼워 맞추기보다는 그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여 좌우, 전후의 길이가 다르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의 비대칭 실루엣을 시도하면서(Figure 11) 균형과 불균형 사이의 미를 구현, ‘불균형의 균형’ 특성을 이루었다.

래;코드는 소각을 앞둔 남성 정장, 캐주얼웨어, 스포츠웨어 등을 해체하고 해체된 조각들을 새로 위치시키는 작업을 통해 아름다움을 구현한다. 원래의 위치를 벗어난 조각들은 의외의 위치에서 새



Figure 9. 단순함의 독특함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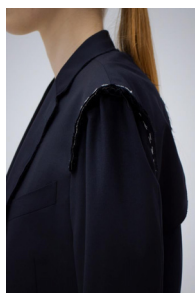


Figure 10. 미완성의 완성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Figure 11. 불균형의 균형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Figure 12. 위치의 재편성
From RE:CODE. (n.d.).
www.recode-glob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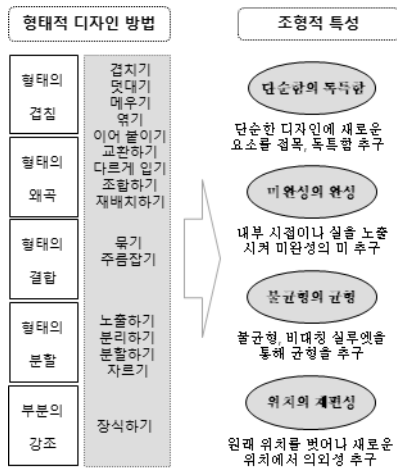


Figure 13. 래;코드의 형태적 디자인 방법과 조형적 특성.

롭고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했다(Figure 12). 래;코드에서 해체된 조각은 패턴 조각 전체로, 혹은 특정 부분으로 절개되어 재배치되었으며, 원래의 위치 근처에, 혹은 동떨어진 위치에 놓였고, 상하좌우 혹은 안과 겹이 뒤바뀐 상태로 배치되어, ‘위치의 재편성’ 특성을 나타낸다.

래;코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형태적 디자인 방법과 조형적 특성은 <Figure 13>과 같이 정리된다.

IV. 작품 제작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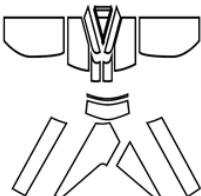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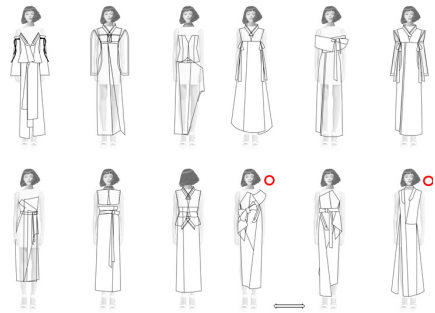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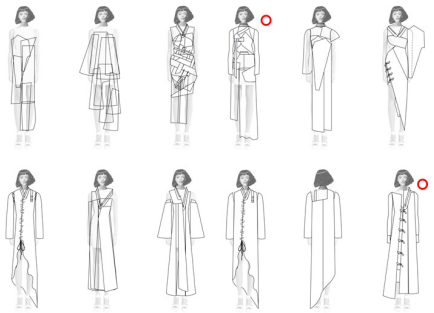
1. 디자인 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래;코드의 재료나 복종의 한계를 넘는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복과 이브닝 드레스를 채택하였다. 과거에 한복은 대를 이어 입었다(Kim, 2017). 부모나 조부모의 옷을 해체, 조합하여 물려 입던 과거의 방식은 오늘날의 지속가능성 실천이다. 재생산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한복은 유행에 구애받지 않으며 정서적, 신체적 편안함으로 인해 오랜 기간 착용할 수 있으

로 진정한 지속가능 패션에 해당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생산하는 브랜드가 남성복과 스포츠웨어 중심, 기성복 중심이므로 래;코드의 재료 또한 이러한 의류에 한정되며, 결과물의 복종 또한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 본 연구는 중고 한복을 소재로 새로운 이브닝 드레스를 개발 제작하고자 한다. 이때 앞에서 분석된 래;코드 컬렉션의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며, 특히 래;코드가 재료를 모으고 제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제작과정을 참고한다.

래;코드의 제품은 소각 예정인 의복이나 군용 폐기물 또는 산업 폐기물을 수집하는 ‘소재 선정’ 단계, 굿윌스토어와 함께 하는 ‘세탁 및 해체’ 단계, 디자이너와 봉제 장인이 협업하는 ‘디자인 및 가봉’ 단계, 그리고 ‘제작’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본 연구는 ‘소재 선정’ 단계와 ‘세탁’ 단계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아름다운 가게’로부터 기부받아 세탁을 마친 중고 한복을 수집하였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서울시가 업사이클링 기반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7년에 개관한 새활용 복합 문화공간이다(Introduction of Seoul Upcycling Plaza, n.d.) ‘해체’ 단계는 연구자가 직접 실행하여 모든 소재를 온전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래;코드의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가봉을 통해 한복의 다양한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봉제 전문가와 함께 제작하는 ‘디자인 및 가봉’, ‘제작’ 단계를 거쳤다. 디자인 방법은 래;코드 컬렉션에서 분석된 조형적 특성 중 리사이클링 디자인에서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단순함의 독특함’과 ‘위치의 재편성’을 모두 적용하고 작품마다 ‘미완성의 완성’과 ‘불균형의 균형’ 특성을 각각 적용하여 차별화를 추구하였다. 디자인의 과정은 수집된 한복의 도식화를 해체하고 이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조형적 특성을 적용한 24 착장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 중 4 착장을 선정하여 머슬린 가봉 작업을 하였으며, 평면 스케치를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정작업이 진행되었다(Table 2).

Table 2. 한복 도식화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디자인 개발.

한복 도식화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디자인 개발		
도식화 해체	 <p>두루마기</p>  <p>저고리와 바지</p>	
디자인 개발	단순함의 독특함 + 위치의 재편성 + 미완성의 완성	단순함의 독특함 + 위치의 재편성 + 불균형의 균형
		

2. 디자인 해설

작품 I 은 단순함의 독특함, 위치의 재편성과 미완성의 완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으로서 중고 한복인 남자 두루마기와 여자 두루마기를 해체한 것이다. 본래는 외투의 형식이었지만 위치의 재편성을 통해 미니멀한 디자인에 커다란 리본을 가미시킨 이브닝 드레스로 리디자인 하여 단순함의 독특함을 추구하였고, 작품이 다루어지는 과정이 드러나도록 밑단과 시접 처리를 하지 않고 실밥이 노출되도록 제작하여 미완성의 완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I 에 사용된 디자인 방법은 ‘겹치기’, ‘노출하기’, ‘다르게 입기’, ‘덧대기’, ‘묶기’, ‘분리하기’, ‘이어 붙이기’, ‘장식하기’, ‘조합하기’의 총 10가지이다.

작품 II 는 작품 I 과 동일한 조형적 특성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중고 한복의 남자 두루마기와 저고리를 활용하였다. 남자 저고리에 있던 자수를 이브

닝 드레스에 부분적 강조로 활용, 위치의 재편성과 단순함의 독특함을 추구하였고, 시접 부분을 밖으로 빼내고 밑단 처리를 하지 않는 등 노출하기 방법을 활용하여 미완성의 완성을 표현하였다. 남자 두루마기는 작품 III, IV와 공유하였다. 작품 II 에 사용된 디자인 방법은 ‘겹치기’, ‘교환하기’, ‘노출하기’, ‘다르게 입기’, ‘덧대기’, ‘분리하기’, ‘이어 붙이기’, ‘장식하기’, ‘조합하기’로 총 9가지이다.

작품 III 은 단순함의 독특함과 위치의 재편성에 불균형의 균형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중고 한복인 남자 두루마지와 여자 저고리를 활용하였다. 저고리의 앞부분은 드레스의 등 부분에, 뒷부분은 가슴에 위치시켰고, 저고리의 팔 부분을 스트랩리스 탑(strapless top)처럼 보이도록 배치하여 위치의 재편성과 불균형의 균형을 추구하였으며, 한복의 특징적 요소 중 하나인 저고리 매듭으로 부분적 강조를 하여 단순함의 독특함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 에서 활용된 디자인 방법은 ‘겹치기’, ‘교환하기’,

‘다르게 입기’, ‘덧대기’, ‘묶기’, ‘분리하기’, ‘이어 붙이기’, ‘장식하기’, ‘조합하기’, ‘재배치하기’로 총 10가지이다.

작품Ⅳ는 작품Ⅲ과 조형적 특성이 같으며, 중고

한복의 남자 바지를 활용한 탑 드레스와 남자 두루마기 2벌로 제작한 재킷 형태의 드레스이다. 남자 바지의 앞여밈에서 발견한 오버랩시켜 리본으로 묶는 방식을 탑 드레스에 랩 형식의 여밈으로

Table 3. 작품 해설.

세부 사항			작품 사진
작품 I	재료: 남자 두루마기 1벌 여자 두루마기 1벌	디자인 방법: 겹치기 노출하기 다르게 입기 덧대기 묶기 분리하기 이어 붙이기 장식하기 조합하기 재배치하기	
	도식화: 		
작품 II	재료: 남자 두루마기 2벌 남자 저고리 1벌	디자인 방법: 겹치기 교환하기 노출하기 다르게 입기 덧대기 분리하기 이어 붙이기 장식하기 조합하기	
	도식화: 		
작품 III	재료: 남자 두루마기 2벌 여자 저고리 2벌	디자인 방법: 겹치기 교환하기 다르게 입기 덧대기 묶기 분리하기 이어 붙이기 장식하기 조합하기 재배치하기	
	도식화: 		
작품 IV	재료: 남자 두루마기 2벌 남자 저고리 1벌	디자인 방법: 겹치기 교환하기 다르게 입기 묶기 분리하기 분할하기 이어 붙이기 장식하기 조합하기 재배치하기	
	도식화: 		

적용, 위치의 재편성과 불균형의 균형을 표현하였다. 재킷 형태의 드레스 또한 좌우 형태를 비대칭으로 하고자 왼쪽은 깃과 동정을 활용하고, 오른쪽은 어깨선 떨어지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위치의 재편성과 불균형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또한 탑 드레스와 재킷형 드레스에 각각 한복 동정을 달아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리본을 달리 묶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작품IV에는 ‘겹치기’, ‘교환하기’, ‘다르게 입기’, ‘묶기’, ‘분리하기’, ‘분할하기’, ‘이어 붙이기’, ‘장식하기’, ‘조합하기’, ‘재배치하기’ 등 총 10가지 디자인 방법이 활용되었다.

작품 I-IV의 개발 과정과 디자인 해설은 <Table 3>과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지속가능 패션에 주목하여 국내 패션 브랜드 래;코드의 컬렉션을 분석하고 그에 나타난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가능 의상디자인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 패션의 개념과 기업의 실천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래;코드 컬렉션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하여 래;코드가 시도하고 있는 디자인 방법과 기법을 분석하여 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조형적 특성과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24개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그중 4개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래;코드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 방법은 형태의 겹침, 형태의 왜곡, 형태의 결합, 형태의 분할, 부분의 강조로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형태의 겹침에는 겹치기, 덧대기, 메우기, 이어 붙이기, 엮기의 기법이, 형태의 왜곡에서는 교환하기, 다르게 입기, 재배치하기, 조합하기가, 형태의 결합에서는 묶기와 주름잡기, 형태의 분할에서는 분리하기, 분

할하기, 자르기, 노출하기의 기법이 나타났으며, 부분의 강조에서는 장식하기의 기법이 나타나 총 16가지의 디자인 기법이 도출되었다. 한편 이상의 디자인 방법을 바탕으로 단순한 디자인에 새로운 요소를 접목하여 독특함을 추구하는 ‘단순함의 독특함’, 내부 시접이나 실을 노출해 미완성의미를 추구하는 ‘미완성의 완성’, 불균형, 비대칭 실루엣을 통해 균형을 추구한 ‘불균형의 균형’, 원래 위치를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의외성을 추구한 ‘위치의 재편성’ 등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래;코드의 형태적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여 래;코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료와 복종인 중고 한복을 이용한 이브닝 드레스를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함의 독특함과 위치의 재편성에 미완성의 완성을 접목한 2점과 단순함의 독특함과 위치의 재편성에 불균형의 균형을 접목한 2점으로서,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구입한 남자 두루마기, 저고리, 바지와 여자 저고리를 재료로 하여, 한복 도식화를 해체하여 얻은 다양한 패턴의 조합작업으로 개발되었다. 원래 한복이 대를 이어 입는 방식으로 우리 선조의 지속가능성 실천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점, 오늘날 서양식 이브닝 드레스와 과거 여성 한복의 기능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전통한복을 이용한 현대적인 드레스’는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의 개념으로서 ‘오래된 것에 새로움을 덧입힌다’라는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개념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래;코드는 국내의 대표적 지속가능 패션브랜드이자, 형태 중심의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적 패션디자인 방법 도출에 적합한 사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의 브랜드에서 도출한 방법으로 패션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한 본 연구가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 사례를 통하여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 방법을 논

하는 후속 논의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References

- Akner Koler, C. (2000). *Three-dimensional visual analysis* (Kim, C. S., Trans.). Seoul: Johyungkyoyook.
- Bae, S. J., & Jung, K. H. (2018). *Up-cycling fashion des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Chon, Y. M., & Bae, J. M. (2015). Ecological aesthetic interpretation of sustainable design approaches implied in Martin Margiela's fashio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6(6), 495-510.
- Chung, H. J., & Park, J. H. (2015). Zero-waste design of PartspARTs IMSEONOC. *Journal of Fashion Design*, 15(4), 171-186. doi:10.18652/2015.15.4.11
- Gucci Equilibrium. (n.d.). *Gucci*.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s://www.gucci.com/kr/ko/st/our-commitment>
- Heo, J. Y. (2013). *Fashion design which applies a deconstruction method based on ethic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M Group and IKEA collaborate on large-scale study within recycled textiles. (2019, October 17). *H&M Group*. Retrieved September 10, 2020, from <https://hmgroup.com/media/news/general-news-2019/HMGroup-IKEA-collaborates-recycled-textiles.html>
- Introduction of Seoul Upcycling Plaza. (n.d.). *Seoul Upcycling Plaza*.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www.seoulup.or.kr/introduce.do?type=Business>
- ITN. (2017, July 3). Burberry, supports future material development. *ITN*.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22>
- Jeong, S. J. (2013). *The sustainability of consumer-oriented fashion produ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ang, C. W. (2018, June 7). 구찌, 환경의 날 맞아 '구찌 이퀄리브리엄' 프로젝트 발표 [Gucci, Announcing the Gucci Equilibrium Project on Environment Day]. *Fashion Seoul*.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s://www.fashionseoul.com/158861>
- Kim, E. J. (2017). Development of design for sustainable fashion culture products using old Hanbok.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0(4), 123-136. doi:10.1688/5/jktc.2017.12.20.4.123
- Kim, J. H. (2006).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와 적용*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aju: Korea Studies Information.
- Kim, M. J. (2019, December 2). 패션의 미래. [The future of fashion]. *W Korea*. Retrieved May 30, 2020, from http://www.wkorea.com/2019/12/02/?ed%8c%a8%ec%85%98%ec%9d%98-%eb%af%b8%eb%9e%98/?utm_source=naver&utm_medium=partnership
- Kim, M. K. (2020, April 21). 그냥 패션 말고, 친환경 패션. [Not just fashion, Eco-Essential fashion]. *Elle*. Retrieved May 30, 2020, from <https://www.elle.co.kr/article/46111>
- Kim, N. H., & Park, S. H. (2018). The current situation of vegan fashion brands as alternative strategy. *Journal of Fashion Design*, 18(4), 17-33. doi:10.18652/2018.18.4.2
- Kim, S. H. (2007).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ed on the case study in U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 Kook, H. S. (2013). *A study of sustainable zero waste fashion desig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won, J. S. (2011).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rocess of recycle fashion. *Journal of Basic Science*, 28(-), 33-44.
- Kwon, O. K. (2018, November 21). 당신이 입는 옷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 [The clothes you wear are ruining the earth]. *Greenpost Korea*.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22>
- Lee, H. Y. (2020, March 1). 지속가능한 것이 아름답다 [Sustainability is beautiful]. *Allure*. Retrieved May 30, 2020, from <http://www.allurekorea.com/2020/03/01/%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ea%b2%83%ec%9d%b4-%ec%95%84%eb%a6%84%eb%8b%b5%eb%8b%a4/>
- Nam, H. J. (2019, October 15). MAKE IT BETTER. *Vogue Korea*.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www.vogue.co.kr/2019/10/15/make-it-better/?utm_source=Naver&utm_medium=partnership
- Naver Dictionary. (n.d.a). 지속가능한 패션 [Sustainable fashion]. *Naver*.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4465&cid=40942&categoryId=32077>
- Naver Dictionary. (n.d.b). 형태 [Formation]. *Naver*.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327&cid=58880&categoryId=58880>
- Naver Dictionary. (n.d.c). 겹치다 [overlap]. *Naver*.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ad9f4b904ae4ad1a752d602b0dd6c01>
- Naver Dictionary. (n.d.d). 분할 [division]. *Naver*.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39fbee8df54f94af3449451a81ad21>
- Open plan story. (n.d.). *Open plan*. Retrieved May 29, 2020, from <https://www.openplan.kr/about/story.html>
- Park, I. Y., Chang, B. Y., Cho, H. K., & Kim, J. Y. (2017). Design analysis of the upcycle fashion brand "RE:CODE". *Journal of Human Ecology*, 21(2), 85-100.
- Park, J. Y. (2013). *Upcycling redesign development in appar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RE;CODE. (2015). *RE;CODE: This is not just fashion*. Seoul: Around.
- RE;CODE. (2016). *RE;CODE: More than just a fashion*. Seoul: The Book Company.
- RE;CODE. (2019). *UPCYCLE: RE;CODE 지속가능한 패션의 모색, 그 세 번째 기록* [UPCYCLE: RE;CODE searching for sustainable fashion, the third record]. Seoul: Kolon Industries FnC.
- RE;CODE. (n.d.). *RE;CODE*.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s://www.recode-global.com/>
- RE;CODE is... This is not just fashion. (2015, February 25). *Naver*. Retrieved September 10, 2020, from https://blog.naver.com/re_code/220283225662
- Shin, H. S. (2014). *An analysis fashion trends and fashion design planning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sustain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Shin, S. Y., & Hong, J. M. (2010). The sustainable green fashion marketing strategies according to classification of green fashion marketing of domestic fashion companie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8(5), 872-891.
- Sustainability. (n.d.). *H&M Group*. Retrieved September 10, 2020, from <https://hmgroup.com/sustainability.html>
- The Funtastic place. (n.d.). *The Funtastic*. Retrieved November 5, 2019, from <https://blog.kolon.com/search/래코드>
- Yoo, J. B. (2019, August 8). 버버리, 멋과 환경을 동시에! 재활용 쓰레기로 코트 출시 [Burberry, style and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Launch coats as recycled waste]. *fashionN* Retrieved May 29, 2020, from https://www.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25&number=29742
- Vegan tiger. (n.d.). *Vegan tiger*. Retrieved May 29, 2020, from <https://vegantigerkorea.com/#modal-1>
- 000gan. (n.d.). *000gan*. Retrieved May 29, 2020, from <http://000gan.com/about/>

A Study on Sustainable Fashion Design

- Using the Design Method of RE;CODE -

Yeon, Ju hyun • Park, Juhee⁺

Master, Dept. of Fashion,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fashion enterprises consider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ashion are developing a lot of projects to practice the sustainability.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RE;CODE as a representative case in the domestic fashion brands. RE;CODE has been satisfying needs of contemporary consumers thinking highly of individuality through small-sized production using stock or limited production of clothes with the same design but a little different detail.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design development method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E;CODE, the research aimed to develop sustainable fashion design products of a new mode. It adopted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y of sustainable practice by fashion companies and 418 RE;CODE products launched between 2012 and 2019.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sign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its sequence for RE;CODE products, a variety of design methods were shown from clothes deconstructed and recombined using inventories in the RE;CODE collections. Furthermore, in the analysis based on design methods, the study derived the ‘originality of simplicity’, ‘finish of the unfinished’, ‘balance of imbalance’ and ‘reorganization of position’ a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E;CODE. Finally, based on the analytic findings, 4 fashion designs were developed and produced. To practice a basic concept of the sustainable fashion design which adds the new to the old, the study adopted the secondhand traditional Hanbok as a material and designed evening dresses RE;CODE does not have. The research used design methods implemented by RE;CODE but expanded a horizon of the sustainable fashion design beyond limitations to material or type RE;CODE has. It contributes to studies on the sustainable fashion design development pursuing future-oriented and creative methodologies.

Key words : sustainability, sustainable fashion design, RE;CODE

